

# '틈새공략' 종편3사 일제히 시트콤으로 승부 건다



종편 3사가 일제히 시트콤으로 승부를 건다. 종합편성채널 MBN이 오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에 시트콤 '연남동 539'를 선보인다. '연남

동 539'는 서울 연남동 세어하우스를 배경으로 한 비혼족들의 이야기. 총 12부작으로 각기 다른 사연과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한곳에 모여 살며 매회 현실감 넘치는 색다른 에피

MBN, 비혼족 이야기 '연남동539' 첫방송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내달 5일 방송

소드를 펼치는 시리즈형 에피소드 드라마이다. 특히 비혼족들을 혼자이게 만드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 등을 담아 여러가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배우 이문식, 이종혁, 오윤아를 비롯해 브라이언, 고우리, 최우혁, 틴탑 천치 등이 출연한다. 무엇보다 MBN이 3년만에 내놓는 드라마 편성에서 흥행 성패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TV조선에서는 이미 지난달부터 '너의 등짝에 스매싱'으로 기존 시트콤 팬층을 확보하고 나섰다.

'하이킥 시리즈' 등을 배출한 시트콤 명장 김병욱이 이끄는 사단이 내놓은 '너의 등짝에 스매싱'은 기존 중 등을 비롯해 황우슬혜와 장도연 등 새로운 얼굴들까지 가세해 팬들의 배꼽을 잡게 하고 있다. 평일 저녁 일일극 시간대에 편성, 매일 편성된다. 사실만으로도 기존 시트콤 마니아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청률은 1%대에서 시작해 현재는 그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총 50부작 중 이제 막 반란점을 돌아선 '너의 등짝에 스매싱'이 반전을 꾀

하며 호평 속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JTBC에서는 다음달 5일부터 월화극 편성 시간대에 시트콤 '으라차차 와이키키'를 내놓는다. '연남동 539'가 세어하우스를 배경으로 한다면, '으라차차 와이키키'는 게스트 하우스가 주무대다. 영화감독을 꿈꾸는 불운의 아이론 동구(김정현 분), 팔기 총만 생계형 배우 준기(이이경 분), 반백수의 배꼽을 잡게 하고 있다. 평일 저녁 일일극 시간대에 편성, 매일 편성된다. 사실만으로도 기존 시트콤 마니아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청률은 1%대에서 시작해 현재는 그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총 50부작 중 이제 막 반란점을 돌아선 '너의 등짝에 스매싱'이 반전을 꾀

최근 공개된 대본리딩 현장 스틸로도 이들의 열기가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지상파에서는 시트콤이 종적을 감춘 상태. 종편에서 각기 선보이는 시트콤들이 시트콤의 전성시대를 다시 한 번 열어줄 수 있을지 기대된다. 한 관계자는 "시트콤을 좋아하는 팬층은 분명히 있지만, 편성을 잡는 게 워낙 쉽지 않아 그동안 볼 수가 없었다. 드라마로는 경쟁력이 약한 종편이 틈새 전략으로 시트콤을 내놓고 편성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 시트콤들이 조금씩 나오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들 작품들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다음 시트콤 편성을 기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 '조선미인열전', 모던 창극+청춘 로코 조합 제대로 통했다

천편일률적인 형식을 넘어선 가장 한국적인 감성을 지닌 참신한 국악 뮤지컬 드라마가 탄생했다. 6~7일 오후 방송된 KBS 1TV 신년특집 드라마 '조선미인열전' (연출 김대현, 극본 경민선)이 현대적 감각과 화려한 영상미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조선미인열전'은 전통음악과 무용을 기반으로 한 모던 창극으로 성별과 신분을 뛰어넘어 오로지 춤에 대한 열정으로 팔팔 똘똘 춤 덕후 신비 규현(여원 분)과 남사당파 무희 소혜(김나니 분)의 꿈과 열정의 댄싱 리브스토키가 담긴 2부작 뮤지컬 드라마이다.

신명 나는 국악과 전통춤이 어우러진 풍부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여장남자'라는 신선한 소재가 이슬아슬한 필당 로맨스의 장치로 활용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청춘로코의 매력으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여장남자 신비 규현 역을 맡은 펜타곤 여원은 여성과 남성 캐릭터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멀티 매력'을 심분 발휘하며 명실공히 배우들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했고, 소리꾼 김나니는 당당한 '춤꾼' 소혜를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완성해 풀입도를 높였다. 여기에 퓨전 국악과 전통무용, 코믹과 멜로 그리고 통쾌한 풍자, 해

학까지 다양한 색깔이 한데 어우러지는 참신한 조합은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다양한 계층, 특히 젊은 층이 현대적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여원과 김나니가 함께 부른 '넘어와요'는 로맨틱한 핑크빛 하모니로 극의 감동을 높이는 데 특출히 기여했고, 외모지상주의를 꼬집는 '미인 블루스'와 랩 배틀을 연상시키는 '미자 배틀'은 센스 넘치는 언어유희로 깨알 같은 웃음을 선사했다. 큰 인기를 끈 또 다른 요인으로 는 창작국악극 대작인 '윤현공 로멘스'의 경민선 작가의 맛깔난 대본



과 창극시트콤 '옥아네와 K소리'와 위를 마치고 한 편의 뮤지컬비디오를 보

악동' 등 우리 국악 콘텐츠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한 김대현 PD를 비롯한 제작진의 내공과 열정 덕분. 3년 여 간 김대현 PD와 경민선 작가의 공동작업으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해지지 않는 청춘 로맨스와 통쾌한 권선징악 플롯을 현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차진 대사와 노랫말로 가득 채워내며 기존의 전통 판소리가 가진 풍자와 해학의 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그런가 하면 김대현 감독은 생동감 넘치는 춤사위를 마치고 한 편의 뮤지컬비디오를 보

는 듯한 리드미컬한 연출로 국악과 뮤지컬을 넘나드는 전에 없던 드라마 장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연출을 맡은 김대현 PD는 "우리의 전통 국악과 무용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현대와 함께 숨 쉴 수 있는 트렌디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봐주셔서 너무나 기분 좋게 감사했다. 저희 '조선미인열전'을 시작으로 국악의 매력을 살린 새로운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돼서 더 좋은 작품들을 더 많이, 더 자주 만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선미인열전'은 KBS 홈페이지와 myK 앱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이어 '코코'로 또 일낼까



지난 2014년 1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감독 크리스 박)이 국내 영화시장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열사 신드롬'을 일으켰었다. 1029만 6101명(영진위 제공)의 관객을 모으며 역대 순위 20위권 안에 안착하고 있다. 외국

만화로선 이례적인 성적이다. 정확히 4년 만에 '겨울왕국'에 버금갈 또 한 편의 애니메이션 '코코' (감독 리 언크리치)가 이달 11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코코'는 가수를 꿈꾸는 소년 미구엘이 우연히 저승 세계로 들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황홀한 모험을 그린다. 새로운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차별되는 답화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코코'를 향한 기대가 끈기롭게 가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언론 배급사(이후 평단에서 호평이 쏟아져서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다

소감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캐릭터들의 활약, 독창적인 사운드 트랙, 감동적인 스토리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 재미를 선사한 것으로 보인다. '코코'는 제75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을 앞두고 장편 애니메이션 상 및 주제가상의 유력한 수상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각종 해외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 된 '코코'가 골든 글로브에서도 2관왕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언론은 디즈니 픽사의 가장 매력적인 작품이라며 전 세계가 '코코'에 매혹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따뜻한 가족이야기로 전 세대의 장벽을 허물 것이라는 의미다. 분명 '겨울왕국' 못지않게 관객들의 심금을 울릴 또 하나의 애니메이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코' 흥행신드롬의 끝을 짐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국내 개봉 전부터 멈출 줄 모르는 찬사를 받으며 작품성까지 겸비한 '코코'는 11일 국내 관객들을 녹이며 흥행레이스를 이어갈 것이다.

## 판타지극 '화유기', 유치하거나 흥미롭거나

유치하고 오글거리거나, 혹은 흥미로운 전개'의 연속이다. 최근 방영 중인 '화유기' 얘기. 확실히 지금 TV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 tvN 토일드라마 '화유기'는 최근 본격적인 스토리와 스케일을 자랑하는 드라마이다. 주인공들이 날아다니는 장면이 매회 등장하고 그도 아니면 뽀빠이를 부수고있거나, 다시 고치거나 또는 현란한 액션신을 선보인다. 그러면서도 부담스러운 정도의 직진 러브라인을 쟁기고 있으며 시청자들 입장에서 '볼 거리는 많은'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드라마 밖에서 '화유기'를 지켜보고 있으면 이 드라마를 지켜보는 두가지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화유기의 화려한 볼거리에 빠져 "즐겁고 재밌다"는 평을 내놓는 한편, 또 다른 일부 시청자의 경우 "오글거리고 유치하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다. 두 반응을 보면, '화유기'는 확실히 그 경계에 서있는 드라마임은 틀림 없었다. 판타지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의 눈은 '노케비' 이후로 한껏 높아진 상태이기에 '화유기'가 이 기준을 통과할 수 있

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화유기'의 기본적인 토대는 '코믹'과 '스릴'과 '액션', 그리고 '러브라인'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화유기'는 지금껏 본적 없는, 다방면의 복합장르를 추구한다고 이미 제작발표회 당시에 공개한 바 있다. 이 다양한 장르를 한 데 섞으니 누군가는 '조악하다'고 표현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흥미롭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화유기'라는 드라마가 가진 매력이다. '화유기'를 거치고 돌아온 '화유기'는 이들이 계속해서 추구했듯 코믹과 액션, 스릴러, 그리고 러브라인과 공포를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선사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CG(컴퓨터그래픽) 효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으며 다양한 귀신과 요괴들이 등장해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리고 러브라인을 담당하는 손오공(이승기)과 진선미(오연서)의 간지러운 장면들이 몇 차례 등장하기도 했다. 이 모든 장면을 한 회 한 회에 동시에 담으려면 70분이라는 방영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야 가능할

터. 좀비 소녀의 이야기와 손오공과 진선미의 러브스토리, 그리고 우마왕(차승원)과 마비서(이엘), 피케이(이흥기) 등이 등장하는 코믹한 설정 등도 제대로 소화해야 했고,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메인 서사가 부족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등장했다. 원점으로 돌아와 '화유기'는 지금껏 본적 없는 다양한 복합장르를 포함하고 있는 드라마기에 시청자들이 느끼는 감정도 천차만별일 것. 꾸준히 등장하는 CG화면과 저질적인 애정공세를 펼치는 손오공의 코믹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모습들이 과거 어린이 영웅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하면서 시청자들 역시 '유치함'과 '흥미로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중이다. 어찌됐든 드라마의 '이런 맛'을 좋아하는 시청자들도 있는 것. 덕분에 '화유기'는 케이블 드라마치고는 평균 이상의 시청률인 5.0%를 유지하는 중이다. 유치함과 흥미로움의 경계에 서있는 드라마 '화유기'가 아직 잘못해 유치하고 오글거리려는 평민을 듣는 드라마가 되지 않고 시청자들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오늘의 순세 2018년 1월 9일 화요일 (음력 11월 23일)

- ▶ **계축** 계획, 사업 등 모두 전망이 밝다. 능력주의 세대이니 허락하는 한 힘껏 밀고 나가도 좋을 듯. 헌 집 버리고 신축하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하라. 2, 8, 12월생 좋은 소식 있겠다. 흰색으로 단정할 것.
- ▶ **계축** 남의 말을 따라만 가지 말고 신념을 갖고 일을 추진하면 곧 좋은 결과가 온다. 증권이나 기타 투기는 오늘만은 승산이 크다. 그러나 그 재미로 지속해서 하지 말 것. 3, 7, 11월생 매매는 가능하나 불이익이 있다.
- ▶ **계축**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해를 가져온다. 때를 기다리며 자기 수양에 힘쓰라. 사업이나 가정 문제도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재출발할 때다. 2, 9, 10월생 진실한 삶을 추구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며 행동하라.
- ▶ **계축**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힘든 시기는 이제 끝나고, 좋은 시기가 펼쳐지는 길일. 채무 관계나 재판 건 고심하지 말라. 하늘이 돕는다. 당신이 남자라면 아내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며 즐거움을 주라.
- ▶ **계축** 매사가 꼬이는 것 같아도 약간의 어려움만 이겨내면 반드시 노력의 대가가 있을 듯. 애정 문제를 한 번 점검하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 나이 차이에 애정이 멀어지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임을 알아야 한다.
- ▶ **계축** 주변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이며, 문서 관계에 신중할 것. 기, 표, 초 생기는 남의 일에 휘말려 자기 것까지 다 빼앗길 수다. 4, 6, 10월생, 큰 자식에게 금심 할 일 생길 듯. 말을 적게 하라.
- ▶ **계축** 그동안의 수고가 결실할 시기가 수확할 때는 아직은 아니니 욕심내지 말라. 남자가 하는 일은 손조롭고, 여자가 하는 것은 초조할 뿐이구나. 3, 4, 12월생 검은색 길조.
- ▶ **계축** 허황한 욕심을 버리기보다 더욱 노력해야 한다.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복을 부름을 알라.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난다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격. 해결책을 찾아 노력할 때다. 노란색은 삼가.
- ▶ **계축** 어둠이 깊고 새로운 일이 생길 수. 희망을 품고 매진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타날 듯.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잃어주는 자제가 필요할 때다.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 ▶ **계축** 자기 임무에 오직 정진하는 자제가 필요한 시기다. 뜬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소신대로 처신하라. 사업 구상은 좋으나 우선 상태를 이해하고 조금 양보하는 자제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4, 6, 12월생 행운의 날.
- ▶ **계축** 매사 혼란스럽고, 의욕은 하락하겠으나 협조를 청하는 것이 좋을 듯. 쓸데없이 방향하다 손재수 있으니 주의 바람. 6, 7, 9월생 사랑하는 사람과 눈치 싸움은 이제 그만하고, 경제적 문제와 생업에 정신 쓸 때임을 알라.
- ▶ **계축** 끈질긴 인내와 지혜로 대처할 때다. 주위 사람과 상부상조하면서 협조한다면 좋은 성과 있을 듯. 직장 다니는 여자는 집안 살림을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제아무리 정이 좋은 부부라도 금이 갈 수 있으니 신경 쓰임 좋다.